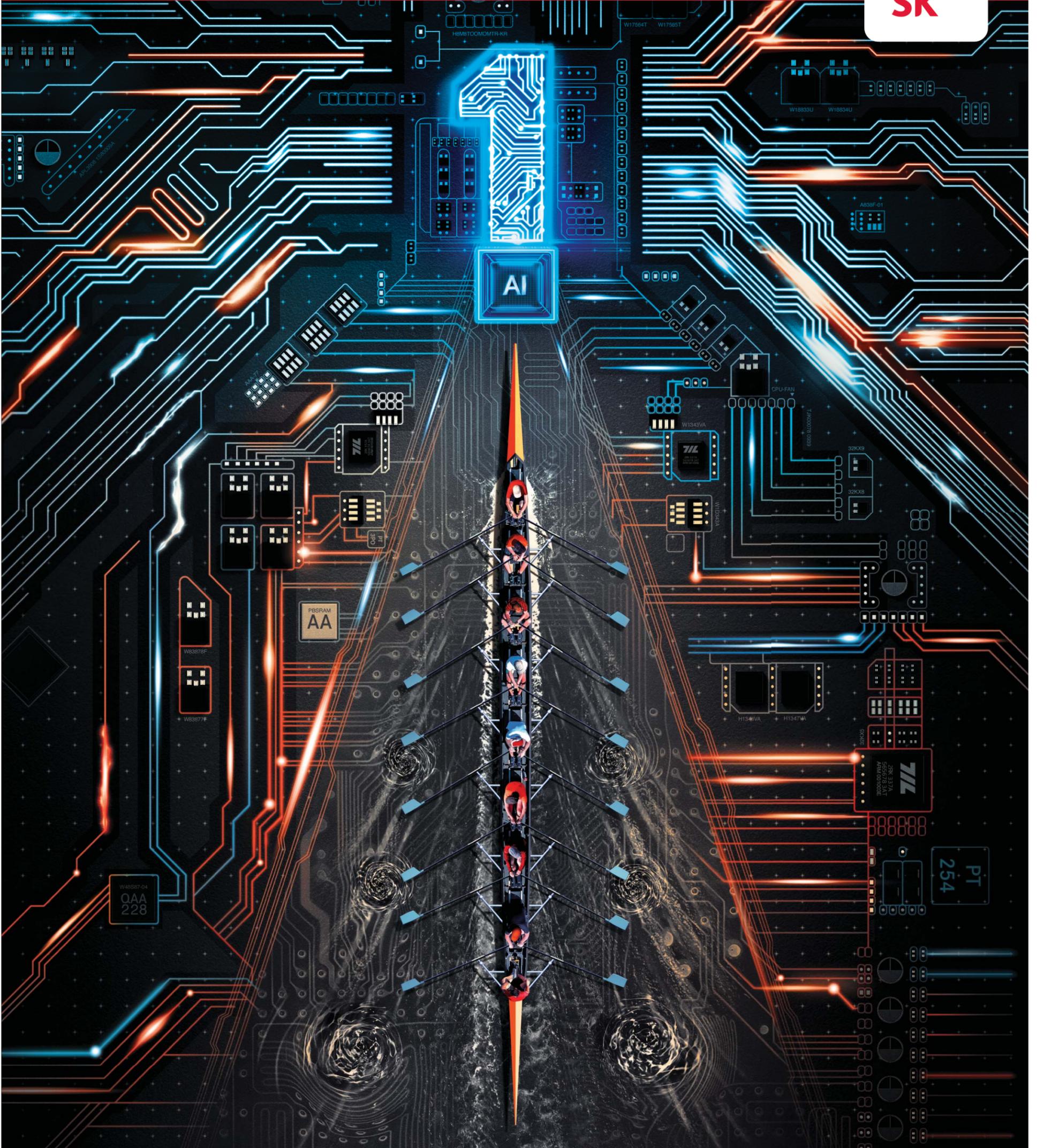


|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



원팀으로 AI시대를 여는 FIRST MOVER